



저축은행 구조조정, 난항 예상

채원영 연구원

■ 금융위는 2012년 5월 6일 솔로몬저축은행, 한국저축은행, 미래저축은행, 한주저축은행 등 4개사¹⁾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음.

●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5월 6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,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, 45일 이내 유상증자,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%이상 달성 등임.

■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, 매각처리 될 것으로 보이거나 인수가능 주체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.²⁾

● 인수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인수한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끝나지 않았거나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.

– 2011년 4대 금융지주사와 현대증권, 키움증권, 대신증권 등이 7개 저축은행을 인수하였으나 경영정상화와 합병 후 통합이 늦어지고 있음.³⁾

–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, 우리금융은 민영화 작업과 자회사의 예술저축은행 인수전 참여로 추가 인수 여력이 없음을 밝혔고, 농협 금융은 지역조합이 이미 저축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.

■ 해당 저축은행들을 제 3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될 것임.

(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)

- 1) 한국, 미래,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% 미만이며, 부채가 자산을 초과.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음.
- 2)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5월 9일 4개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를 선정한다고 발표함.
- 3) 4대 금융지주사 중 KB금융지주는 제일저축은행(KB저축은행), 우리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(우리금융저축은행), 신한금융지주는 토마토저축은행(신한저축은행), 하나금융지주는 제일2·에이스저축은행(하나저축은행)을 각각 인수하였으며 증권사 중 대신증권이 중앙부산·부산2·도민저축은행, 현대증권이 대영저축은행, 키움증권이 삼신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하였으나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신한저축은행이 137억 원 순손실, KB저축은행 79억 원 순손실을 기록함.